

지역 소식통

고창군, 특화자원 체험  
신개념 농촌관광상품 첫 선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지역농촌 특화자원(식초발효, 허브유티링 등) 체험을 확대한 신개념 농촌관광상품을 선보인다.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2024년 농촌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총 사업비 2억5000만원)'이 이번 주말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고창군 농촌관광 프로그램의 특징은 '소규모(20명 내외)', '농촌체험'에 초점이 맞춰졌다. 군은 코로나 이후 농촌관광 사업모델이 단체 위주의 자가 체험 상품에서 소수 고객을 위한 고부가가치 여행 상품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창만의 매력에 스며들기 위해 토굴발효, 워드림 보너스정원 등에서 복분자식초 코디알제작, 허브유티링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농촌크리에이티브는 고창군지역사회발전협의회, (주)바바그라운드, (유)고창고속관광이 함께한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농기센터, 폭염  
대비 원예작물 관리 당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장마 이후 심한 무더위가 찾아오며 원예작물의 고온 건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폭염 예방 및 대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여름철 원예작물은 역병, 탄저병, 꽃마름병, 부패병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데 특히 빛열에 의해 전염되는 탄저병 방제를 위해서는 장마 전후로 살균제 처리를 해야 예방할 수 있다. 고추는 병에 걸린 잎이나 열매는 발견하는 즉시 제거해 주고, 상처를 통한 병원균의 2차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성 살균제를 7~10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해 줘야 한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곰팡이병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탄저병, 포도의 갈색무늬병, 노균병 등을 적극 방제해야 한다. 포도 블루베리 등을 재배하는 시설하우스에는 환기팬을 적극 가동해 최대한 시설 내 공기 습도를 낮추도록 해야 한다. /정읍=김대환기자

# 지진 피해 복구 · 보상 대책 집중 '1인 1평 갯벌 소유 지구 살리기'

## 부안군, 관광지 정상 운영 · 해수욕장 개장 · 변산비치파티 개최 등 일상 회복 최선

부안군이 지난달 12일 발생한 규모 4.8의 강진에 따른 피해 상황 집계를 완료하고 복구 및 보상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등 지진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다. 특히 부안지역 주요 관광지 해수욕장 등은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여름휴가철 성수기에 도 이용에 큰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지진 발생 후 28분경 부안군 남남서쪽 4km(행안면 진동리)에서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하며 권익현 부안군수는 강진이 발생하자 긴급대피 명령을 내리고 오전 8시 30분 최초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는 등 신속히 대응했다. 회의를 통해 곧바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으며 안전안내 문자 및 재난문자 발송, 마을방송 실시, 전광판 송출 등을 통해 피해접수 및 주민행동요령 등을 안내했다.

이어 각 읍면 근무자와 이장단을 통해 피해를 접수했으며 여진 발생에 대비해 주민행동요령과 대피소 위치 등을 홍보하는 데 집중했다. 또 군은 사유재산 피해 상황 확인을 거쳐 주택소와 67명을 피해 대상자로 확정하고 재난목적예비를 활용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피해 주민들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별도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군은 정부의 지진 복구 대책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피해 조사 및 복구 대책 마련과 함께 부안지역에 대한 단층조사도 본격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진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전라권의 경우 당초 오는 2027년 이후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규모 4.8 강진이 부안에서 발생함에 따라 단층검토위원회에서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부안지역 시행 시기를 계획보다 앞당겨 올 하반기부터 본격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7년 예정이었던 부안 앞바다인 사남해 해역의 해저단층 조사 순서를 조정해 오는 2025년부터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 기상청 역시 오는 2027년부터 조사 예정이던 전라북도 지하단층을 올 하반기부터 조사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진 발생 한 달 여를 맞으면서 피해 조사 완료와 보상대책 마련 등 지진 안정화 절차에 들어갔다"며 "본격적인 보상·복구 대책 마련에 착수한 만큼 피해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은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지진 복구와 함께 지진 발생 전으로 빠른 일상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기자

## 부안군-글로벌ESG협회-월드비전, ESG 기반 지속가능발전 협약

부안군과 (사)글로벌ESG협회, 월드비전은 11일 부안군청에서 ESG 기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황인경 글로벌ESG협회장, 김성태 월드비전 ESG사회공헌본부장을 비롯해 각 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에서 갯벌의 생태적·경제적 가치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공감을 모색하고자 1인 1평 갯벌 지키기 사업인 '한평생 부안갯벌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ESG 관련 학문연구 및 정책연구 활성화 협력 등을 약속했다. 맹그로브 숲, 염습지 등 해양생태계 타 여를 맞으면서 피해 조사 완료와 보상대책 마련 등 지진 안정화 절차에 들어갔다"며 "본격적인 보상·복구 대책 마련에 착수한 만큼 피해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은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지진 복구와 함께 지진 발생 전으로 빠른 일상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기자

## 유족 증언으로 되살아난 동학농민군의 삶

### 정읍시 학술대회 열려

정읍시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산하의 동학농민혁명연구소는 11일 동학농민혁명교육관 대강당에서 '유족 증언을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삶'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동학농민혁명 연구자 및 유족, 동학단체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연구자들의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는 기념재단 이병규 연구조사부장의 '유족 증언으로 본 전라도 정읍·고부·태인 지역 동학농민혁명군의 삶'을 주제로 시작했다. 이 부장은 주요 인물에 가려져 언급되지 않았던 이 지역 동학농민혁명군의 삶의 흔적을 설명했다. 이어 김희태 전전남 문화재전문위원의 '유족 증언과 자료로 본 전라도 장흥·강진 지역 동학혁명군의 순국 발표'가 진행됐다. 김 전 위원은 "인명 확인은 됐지만 등록이 안 된 분들이 많다"며 참여자 등록을 위한 법령의 개선, 관련 자료의 재구성, 일반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발표는 조재곤 서강대 연구교수의 '충청도 내포 지역 동학농민군의 진압과 최후 행적'을 주제로 내포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상황과 후손



정읍시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산하 동학농민혁명연구소는 11일 동학농민혁명교육관 대강당에서 '유족 증언을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삶'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농민군 희생자와 생존자의 유형별 사례를 소개했다. 재발표를 맡은 신영우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은 '유족 증언으로 본 충북 지역 동학농민군의 삶'을 통해 갑오년 당시 충북의 사정이 밝혀진 것은 드물고, 생생한 기억이 전승된 사례를 집중 조사해야 하며 일부만 전해진 사례는 단편들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발표는 신진희 안동대학교 강사의 '유족 증언으로 본 강원·경기·경상도 출신 동학농민군의 활동'으로 이 지역 출신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설명하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더 발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겪은 수난과 고통은 물론, 유족들이 겪어야 했던 눈물겨운 이야기는 우리 역사에 반드시 기록되고 전승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학수 시장은 "유족들의 증언으로 당시 참여자들의 애국애족 정신과 처절했던 삶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영우 연구소장은 "학술대회를 마련해준 정읍시에 감사드린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도록 더 많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연구총서를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고창군, 멜론 · 땅콩 · 미니수박 품질만족 대상 수상

고창군의 멜론, 땅콩, 미니수박이 11일 서울 코리어나 호텔에서 열린 '2024 소비자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시상식에서 지역 농산물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소비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은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고객편의를 위한 끊임없는 품질 개발과 양질의 서비스 구현에 앞장서 신뢰와 사랑을 받는 최고의 품목에 수여된다. 고창 멜론과 땅콩은 각각 8년 연속, 7년 연속 수상의 금지탑을 쌓았고, 고창미니수박은 전국 최초로 수상하면서 명실상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고품질농산물의 가치를 드높였다. 군은 오랫동안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수박을 이어갈 품종으로 미니수박을 고소득 작목으로 선정, 2017년부터 각종 시범사업과 교육을 추진해 왔다. 또한 2022년에는 고창군 6개 작목반이 하나로 묶여 고창미니수박연합회를 결성하였으며 2024년 기준 전국 면적의 15%를 차지,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창군은 멜론을 최고특산물로 육성하고자 각종 토양개량사



업을 추진하고, 최고품질 멜론 재배를 바탕으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우수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상, 2023년 농촌진흥청 주관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싱가포르 홍콩 수출 등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또한 고창군은 땅콩 주산지로서 최근 땅콩의 영양적 가치와 기능이 부각되면서 400ha까지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고 전복의 약 73% 재배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소한 맛과 선명한 표피 색깔로 국산 땅콩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업인들의 땀과 정성, 노력이 가득 담긴 고품질 멜론과 땅콩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